

## 창세기강해 7

- 하용조 목사 / 1998. 4.

### 안식의 축복 (2:1~3)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후에 언제나 '참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우주만물을 재창조하고 회복시키시는 안식의 원리**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미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가 진화시켜서 오늘의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코끼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셋째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입니다. 창조물 상호간에 부조화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창조를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재앙이 있고 기후변화와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인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두 리듬을 통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쉬어야 합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인간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신 후에 일곱째날도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창조의 결론이며 완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즐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축복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때 시작이 있습니다.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을 '일중독자'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도 땅도 고장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만 계속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끊임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4백년 동안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창조의 절정인 안식, 예배로 영적회복되어야**

하나님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을 위한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안식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며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진 시민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휴식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서커스단에서 음식을 위해 재주를 넘는 불쌍한 곰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들 인생의 전부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며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 왔을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에 안식의 축복을 준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일주일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미숙함이나 부조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안식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미흡함이 없고 균형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일곱번째 창조인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 일곱째 날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안식일 지킬 것' 명령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을 복을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일곱째 날만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내려준 날을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주일날 엉뚱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복 받은 날에 헌신하시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하면서도 주일은 무시합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혹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 칠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안식일을 사랑하시고 정성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에 부어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특별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네 번째 명령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동안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을 줄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안식일의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 주일은 하나님경외하고 약한 자 돕는 아름다운 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족까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까지도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숙하는 손님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족과 가족까지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안식에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은 안식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모든 관공소의 시험이나 학교의 시험까지 주일날에 치러집니다. 재미

있는 오락도 모두 주일날 행해집니다.

주일날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쾌락을 누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에 사람들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쾌락을 즐긴 사람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탈진하고 피곤한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해, 남을 위해 도와주고 사는 사람은 몸은 조금 피곤할 지라도 항상 마음이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만 증폭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은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과는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항상 주일입니다.'라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말합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말은 반대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일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확실히 지키지 못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일주일이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엉망으로 보낸 사람은 일주일이 엉망인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일은 공휴일입니다. 자기의 날이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조가 경제의 축복에 비밀이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생활과 육체의 생활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위기는 안식일을 24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2시간으로 여기는데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안식일이고 예배가 마치면 '이날은 내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을 섬기는 날입니다. 주일날 원근각처에 있던 가족들이 모여 점심도 먹고 축복하는 날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심방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심방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안식일에 병고친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사이를 걸어가게 되었는데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영터리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을 예를 들어 '배고픈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성전의 떡을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을 때 안식일 날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

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 날 고치지 말고 월요일 날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들려 고생했던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거늘 너희가 너희 집에 나귀도 물을 먹이는데 이 딸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라며 고쳐주셨습니다.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귀히 여길 것입니다. 안식일 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실망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영혼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안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절망이 있고 죄가 있는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비결은 오늘의 말씀대로 '내가 이날에 복을 주었고 거룩하게 했다'는 안식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축복과 거룩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모든 축복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